

김제자영고, 국내 최초 종자산업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민간육종연구단지 등 산업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요람으로 자리잡아



*김제자영고등학교 전경

김제자영고등학교(교장 이효원)가 **전국 최초로 종자생명산업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됐다.

종자산업과(36명), 첨단시설과(18명), 식품가공과(36명) 등 3개 학과 5개반 90명 정원으로 학과를 개편, 오는 2017년부터 마이스터고로 개교한다.

자영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됨에 따라 민간육종연구단지 등에 필요한 산업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김제를 중심으로 종자생명산업 발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
면
안
내

- | | | | |
|----|------------------------------|----|--------------|
| 1면 | 김제자영고, 마이스터고 지정 | 5면 | 행복김제! 읍면동 소식 |
| 2면 | 김제 지평선축제 성황리에 폐막 | 6면 | 독자와 함께 |
| 3면 | 김제시 화합 한마당잔치,김제농업기계박람회로 오세요! | 7면 | 문화·알림마당 |
| 4면 | 행복김제! 시정소식 | 8면 | 주요의정소식 |

새만금지평선소식은 김제시에서 시민과 출향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시정 소식지입니다.

구독신청 :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 ☎ 063) 540-3221

김제시청 대표전화번호

063) 540-3114

평일에도 휴일에도
김제시청 대표전화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한국농경문화의 진수

제17회 김제 지평선 축제

성황리에 폐막 (2015. 10. 7. ~ 10. 11.)

"새로운 시작! 지평선의 끝없는 이야기" 를 주제로 체험중심의 70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3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 도약을 염원하면서 성황리에 성료되었다

사진으로 보는 again! 지평선축제..



유네스코 등재기념 농악기획 공연



도롱이 워터터널



황금들녘 메뚜기 잡기



벼탈곡 체험



글로벌 쌀 음식 솜씨자랑



벽골제 쌍룡 야간경관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결정 축하

김제시민 화합 한마당 잔치

- 일 시 : 2015. **11. 13 (금) 10시 30분** (기념식 11시)
- 장 소 : 김제시민운동장
- 내 용 : 식전행사, 기념식, 축하공연 등
- 참석대상 : 김제시민 누구나
- 주 관 :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2015 대한민국 대표 농업도시

김제 농업기계박람회

♣ 기간 : 2015. **11. 10(화) ~ 11. 12(목)**

♣ 장소 : 김제시 벽골제 일원



전시분야

180개사 371개모델 참여

- ▶ 농산물 가공·포장분야 - 세척 및 선별장치, 포장·결속장치, 저온저장고 등
- ▶ 경운·정지기계, 이앙·파종기계, 과수용기계 등
- ▶ 조사료생산기계, 급이·급수장치, 축분건조기 등
- ▶ 시설원예기자재, 종묘·종자·농약, IT융복합시설 등
- ▶ 수도작, 전작분야
- ▶ 축산기자재 분야
- ▶ 시설원예 기자재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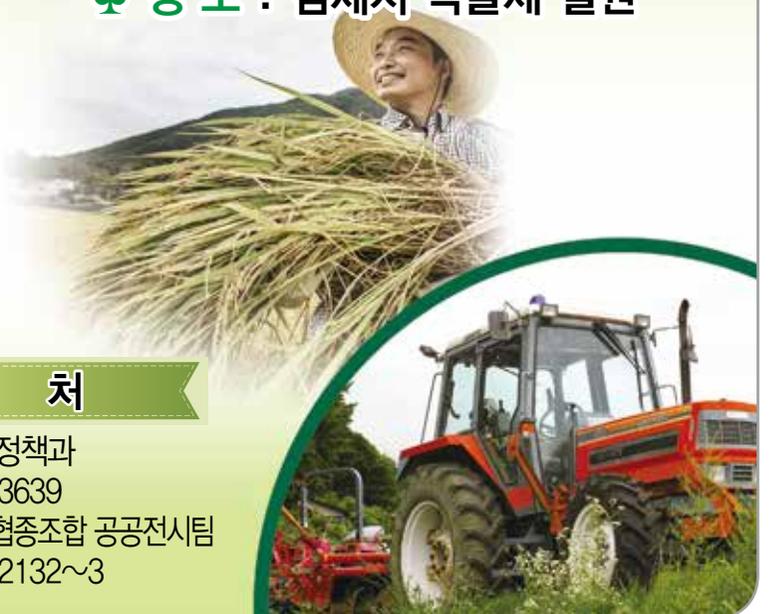
부대행사

- ▶ 김제 우수농특산물 홍보관, 전라북도·김제시 관광홍보관
- ▶ 귀농귀촌 홍보관, 중소기업 및 기업유치 홍보관 운영
- ▶ 향토음식 먹거리장터 운영
- ▶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 토론회



문의처

- ▶ 김제시청 농업정책과 ☎) 063-540-3639
- ▶ 한국농기계공업협조조합 공공전시팀 ☎) 041-411-2132~3



행복학습으로 꼭 찬 『제6회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 성황리에 마쳐』

- 제6회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 11.6~7, 2일간 개최 -

김제시에서는 지역 평생교육진흥과 학습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11.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시민운동장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 「제6회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이 성황리에 마쳤다. "배움니눔, 행복 학습, 더 큰 김제!!" 라는 주제로 120개 평생교육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체험학습과 무대공연발표회, 성인문해한마당 등 다양한 학습과정으로 진행되어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와 호응을 얻었다

홍보체험관인 배움마당에서는 100여동의 부스에서 다양한 학습체험과 전북지역 평생학습도시 체험관을 비롯하여 평생학습관·여성회관 수강생 작품발표회 등이 펼쳐져 유아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관람객의 체험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특히 발표마당에서는 학습동아리,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수강생 발표회, 청소년어울마당 등의 공연발표가 이어져 그동안 배웠던 학습을 뽐내고 발표하는 무대가 되었으며 가족단위 학습자를 위한 4D무비카, 추억의 교실, 학습프리마켓, 성인문해 학습자가 참여한 "한글골든벨" 등 다채로운 학습행사로 꼭 채워져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은 배움마당에서 만든 체험작품을 들어올리며 '김제의 평생학습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알차고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행복한 학습추억을 만들었다'며 내년에는 학습자로 행사에 직접 참여해보고 싶다고 말하였다.



시정 소식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공청회 및 정책 세미나 개최 -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계획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

김제시는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 상록관에서 종자생명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 공청회와 함께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청회 및 세미나에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안경구 박사, 농림축산식품부 하성태 사무관, 김포대학교 한광식 교수, 우석대 산학협력단 이동수 박사 등 종자생명산업 전문가 및 산업특구 관계자들이 주제발표자로 참가했다. 이번에 발표한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계획 내용에는 종자생명산업 연구기능 강화, 종자생명산업 활성화 지원, 종자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 종자생명산업 브랜드 강화 4대전략을 목표로 한 민간육종연구단지, 고품질 종자 생산단지 조성사업, 종자전문 프론티어 양성사업 등 10개 특화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김제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금년 11월중에 중소기업청에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제시 고병원성 A형 유입 위기 차단방역 강화로 청정지역사수!

전남 강진과 나주 지역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가 발생한 이후 광주 재래시장과 전남 담양 식당에서도 A가 잇따라 발생하며,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가 고병원성 A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A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비상체계를 유지하며, 기존 A 발생 농가, 용지 가축 밀집사육지역, 재래시장 산닭판매점 등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예찰 및 소독활동을 강화하고 고병원성 A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중이다.

또한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농가 소독실시 점검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지난 추석 연휴가 끝난 30일에는 귀성객들로 인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을 감안, 도내 모든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이밖에 A 유입 차단 및 전파 방지를 위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으로 SMS, 전화등을 통해 △철저한 축사 소독 진행 △의심축 발견 시 신속 신고 △모임 자제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벽골제 앞 지하보도로 안전하게 횡단해요!

김제시는 벽골제와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청소년수련원)를 통과하는 국도29호선에 안전한 횡단보행을 위한 지하보도 설치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도와 인접한 청소년수련원은 전국 200여 학교에서 연간 5만여명의 학생들이 찾는 수련시설로서 벽골제 체험시설과 연계하여 교차 왕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도29호선 도로는 화물차량 통행량(1,825대/일)이 많고 직선도로 구간으로 과속차량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이다. 그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제시는 국도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현안사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한 결과로 국비 26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김제시, 마을변호사 제도 첫 시행!

김제시는 변호가 없는 무변촌(無辯村)지역의 법률 구조를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10월 26일 17명의 마을변호사가 지정된 읍면동을 방문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했다.

마을변호사제도는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지역을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주는 서비스제도이다.

그동안 농촌지역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법적으로 보호받기에는 경제적인 부담감, 거리상의 접근성, 어려운 법적절차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난 9월 10일 마을변호사제도의 시행을 위해 전주지방검찰청, 전라북도, 김제시, 전북지변호사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번, 법률상담을 시작으로 김제시는 매월 1회 요촌·신평동을 제외한 17개 읍면동에 담당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무료로 넷째주 월요일 법률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읍면동 소식

201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시작!

만경읍(읍장 서연종)은 정부의 올해 공공비축미 곡 매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9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일간 산물벼 144톤, 포대벼 377톤 등 총521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기간은 산물벼 144톤은 9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미곡종합처리장(RPC)를 통해 물벼 상태로 매입하고, 포대벼 377톤은 10월 21일부터 12.31일까지 지정한 수매장소에서 수분량 13.0~15.0% 이내의 포대벼 상태로 800kg 단위로 매입하고 산물벼의 경우 건조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 849원/40kg을 차감하여 수매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1등급 벼 40kg기준 5만2천원으로 작년과 동일 수준이다. 올해에도 풍성한 수확이 예상되는 가운데 농가에서는 더 많은 공공비축미 수매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활 들녘에 울려 퍼진 멜로디, 가을밤을 수놓다

가을의 첫 자락,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들녘과 한들한들 코스모스 길에 아름다운 계절에 조용한 시골마을에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지난 2일 저녁, 벼수확으로 한창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외중에도 힘든 일상을 뒤로 한 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광활 주민 힐링을 위한 “2015 광활, 가을 사랑 콘서트”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함께한 사람도 200여명에 달한다.

열심히 일하느라 지친 광활면민을 위한 힐링 “축하 시 낭송”을 시작으로 소프라노 정수희 교수의 벨라판타지아 등 클래식 명곡과 올드 팝, 댄스, 추억의 포크송과 인생이야기, 트로트, 락 댄스 등 2시간 동안 풍성한 공연으로 농민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다.

김제 금산면, 김대균의 “전통 줄타기판줄”공연

김제 금산면(면장 김황중)에서는 지난 19일 원평장터에서 '희망을 심고 떠나는 전통 줄타기 판줄' 공연이 열렸다. 이번 공연은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중요문화제 제58호 줄타기 보존회가 주관하고 (사)김제농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협력하는 '2015 신나는 예술여행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전통 줄타기 판줄은 줄광대와 어릿광대가 삼현육각의 연주에 맞추어 재미있는 재담과 소리, 춤, 기예(잔노릇)를 관객과 함께 펼치는 놀음이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이번 공연은 외줄타기와 함께 타악이 하나로 어우러져 원평장터를 맞이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김제시 금구면주민자치, 탁구교실 열기 후끈

금구면(면장 강갑구)에서는 운영중인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탁구교실이 지역주민 사이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는 노래교실, 요가교실, 체력단련실을 운영해 왔지만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주민에게 알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지난해부터 위원회의에서 탁구종목의 신설을 논의하여 심의·확정하였으며 지난 4월 탁구교실을 개강하게 되었다.

탁구교실을 처음 시행함에 있어 여러 시행착오를 격기도 했지만 회원들의 열의와 노력으로 8월부터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초보자도 탁구를 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수업을 진행 할수록 교실 안은 회원들의 탁구에 대한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게 되었다.



교월동 입석마을 정승국씨의 따뜻한 이웃사랑

교월동 입석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따뜻한 선행이 마을 전체에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고 있다. 입석마을에서 평생을 거주하며 살고 있는 정승국씨(63세)는 폐쇄공포증이 있는 A씨의 집에 큰 유리를 설치하고 바닥타일을 설치하며 10평을 증축하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기로 결정하고 A씨 거처를 전체적으로 새롭게 단장 중이다.

수리에 들어가는 약 일천만원정도의 비용을 정승국씨가 일체 부담하며 정승국씨가 발벗고 나서자 다른 입석마을 주민들까지도 생계일을 제쳐놓고 현장에 나와서 일손을 돕고 있다. A씨 역시 정승국씨와 다른 이웃들에게 너무 고마운 나머지 다리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일손을 돕고 있었다.

정승국씨는 “마을 이웃이 어려운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건 당연지사인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 오히려 쑥스럽다” 며 흐르는 땀을 닦았다.

독자와 함께

學聖講堂(학성강당)과 함께하는 『고전인문학 이야기』

"바르고 진실한 사람은 세상에 버림받지 않는다"

子謂仲弓曰犁牛之子騂且角이면 雖欲勿用이나 山川이 其舍諸아
자 위 중궁 왈 리우지자 성차각 수옥물용 산천 기사저

공자 중궁을 일컬어 가라사대 얼룩소의 새끼가 붉고 뿔이 바르게
났으면 비록 쓰지 않고자 하나 산천의 신은 그것을 버리겠는가.

- 논어 용야편(論語 雍也篇) -

子-아들 자, 謂-이를 위, 仲-버금 중, 弓-활 궁, 犁-얼룩
소리, 牛-소 우, 騂-붉을 성, 且-또 차, 角-뿔 각, 雖-비
록 수, 欲-하고자할 욕, 勿-말 물, 用-쓸 용, 山-되 산, 川
-내 천, 其-그 기, 舍-버릴 사, 諸-어조사 저

중궁은 공자 제자로 노나라 사람이다. 미천한 출신이나 덕행이
뛰어났다고 전한다.

중궁의 아버지는 당시에 미천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였다. 그러나 중궁은 아버지와 다르게 덕행이 훌륭했다고 한다.

공자께서 이를 비유하여, 일반적인 사람들은 산천의 신께 제물
로 쓸 때 얼룩소의 새끼가 붉고(당시 周나라는 붉은 것을 숭상했
다.) 뿔이 바르게 났다 하더라도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지 않
고자 한다. 그러나 산천의 신은 붉고 뿔이 바르게 난 그 얼룩소의
새끼를 저버리지 않는다 하여 아버지가 악행을 하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만, 중궁 본인 덕행과 진실함은 세상에 인정받을
만 하다는 것을 위로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 김조영 (학성강당에서 수학 중)

고비의 별

밭목을 마구 베어 먹는 모래를

한사코 밀어내며

해 지는 고비에서

별을 기다리다 보았다

지는 해를 안은 빛 알갱이들

사막의 모래언덕, 빛 더미들

여태 별을 밀어내고 있었다니

함부로 밟아 몽그라진 별이었다니

별의 찰나가 모래

모래의 영혼이 별

고비에 와서 비로소 보이는

풍뎡이의 외투, 모기 눈, 가시나무 잎, 낙타 콧등

별이 아득하다고 자꾸 끈지발 딛었다니

반짝이는 것들 다 눈 앞에 두고



시인 김 영

시의 배경 속으로 : 늘 밤하늘의 별을 그리워했다. 멀리서 반짝이는 것만으로
도 충분히 매력적이었고, 무언가 새로운 세상일 것 같았다. 몇 해 전 몽골에 여행
을 갔다.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몽골에서는 별이 주먹만 한 것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린다는 말이 자주 오르내렸다. 나도 몽골의 별을 보러 고비사막으로 나갔다. 해
가 지기를 기다리다가 내 주변에서 반짝이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작
은 풀벌레와 곤충, 그리고 낙타와 나무들이 모두 내 가까이에서 빛나고 있는 별이
였다. 밤하늘의 아득한 별만 생각하며 가까이에 있는 별을 놓치고 있었다.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40(휴먼시아) 206동 703호

한국문인협회 이사, 전북시인협회장, 김제문인협회장, 만경여고 교사

지 평 이 날 말 퍼 즐

①			②		③
②	④				
	③				⑤
④					

(가로 열쇠)

- ①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퍼져 커다란 영향을 미침.
- ② 전라북도 군산시와 고군산군도, 부안군을 연결하는 방조제로, 길이 33.9km이다. 최근 2호방조제가 김제시로 귀속시킨다는 중앙분쟁조정회 의결이 있었음.
- ③ 하늘소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동아시아에 서식하는 딱정벌레류 중에서 가장 큰 종. 천연기념물(제218호)과 멸종 위기 야생 동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 ④ 태양계 내에서 태양으로부터 두 번째에 위치한 행성

(세로 열쇠)

- ① 몸길이 29.5cm로 몸은 선명한 청록색이며 머리와 꼬지는 검은색을 띠는 새. 인도·일본·보르네오섬·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 분포한다
- ② 할아버지의 제주도 사투리로 제주도에 있는 제주돌로 이것을 만들어 기념품으로 판매함
- ③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포교리에서 월성리에 이르기까지 제방이 남아 있는 백제시대의 저수지. 사적 제111호.
- ④ 북쪽의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진나라 시황제가 증축하면서 쌓은 산성
- ⑤ 24절기 중 스무 번째 절기. 이 때부터 살얼음이 잡히고 땅이 얼기 시작하여 점차 겨울 기분이 든다고도 함

10월호 낱말퍼즐 정답

천	문	대			
고		법	정	스	님
마		원			
비	거		한	가	위
		태			령
	지	평	선	축	제

◎ 응모요령 낱말맞추기 정답을 우편엽서에 오려 붙여 11월 20일까지 김제시청 문화홍보축제실 소식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호 정답자 오현(신풍), 최성택(진봉), 김영미(검산), 김병춘(성덕), 강병길(백산), 은세인(신풍)

행복 김제! 문화·알림마당

★ 10월 중 문화예술회관 공연

- ① 5색 가을행복 콘서트
 - 일 시 : 11, 13(금) 19:00
 - 장 소 : 대공연장
 - 공연단체 : 아이엔티팝스오케스트라
 - ※ 발레, 탕고, 보디빌딩, 플라멩고, 전자바이올린 공연
- 청소년 문화탐방 시리즈 "우리가 그 곳에 간 이유"

일 시	대 상	내 용
11.18 (수)10:30	김제 중학교 400명 정도	공연장시설투어 및 공연관람
11.19 (목) 14:00	김제여자중학교 400명 정도	공연장시설투어 및 공연관람
11.20 (금) 14:00	김제금성여자중학교 350명 정도	공연장시설투어 및 공연관람
11.23 (목)14:00	만경여자고등학교 450명 정도	공연장시설투어 및 공연관람

★ 11월 중 지평선시네마 상연예정작



검은사제들 : 15세 이상가



내부자들 : 청소년관람불가



도둑히카 :



스피릿: 12세 이상가



007스펙터 : 15세 이상가



헝거게임 데파이널 : 15세 이상가

◎ 최신 영화 개봉시기에 따라 상영작과 시간은 2주 간격으로 변경됩니다.
 ◎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입니다.
 ◎ 문 의 처 : 지평선시네마 ☎ 547-1501, 1502

★ 2015년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 기 간 : 2015년 10월 30일 ~ 11월 30일
- ◎ 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 신청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결정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
- ◎ 신청장소 : 김제시청 민원소통과(☎540-3749) 및 읍면동
- ◎ 신청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제출
- ※ 서식은 김제시 홈페이지 및 민원소통과, 읍면동에 비치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 지원 요건**
- ♣ 자동차사고 당사자 요건
 - 가족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4급)에 해당하는 경우
 - ♣ 재산 및 소득요건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생계를 같이하는 자란 주민등록상 2촌이내 가족, 미성년 유자녀의 경우 부모 전부 해당)

- ☞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가족전체)
- ☞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지정된 가정

지원 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재활보조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4급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월 20만원/인	1년 단위
피부양보조금	만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	월 20만원/인	1년 단위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0세부터 18세미만 유자녀(幼子女)	월 20만원/인	만18세까지 (2년단위)
장 학 금	초·중·고등학생 (접수기간 : 3~4월, 9~10월)	초 : 20만원(분기) 중 : 30만원(분기) 고 : 40만원(분기)	1년 단위
자립지원금	0세부터 18세미만 유자녀(幼子女)	월 6만원 이내/인	만18세까지

☎ 연락처 : 교통안전공단전북지사 ☎ 063-214-4743

가뭄시기, 물을 아껴쓰시다

“우리 생활 속에서 조금씩만 『물 절약』을 실천한다면 지금의 가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 김제시청 상하수도과 -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제한 안내문

판매·사용이 가능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 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 ▶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201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홍보(안)

- ◆ 조사연혁 : 인구총조사는 1925년, 주택총조사는 1960년 이후 5년마다 실시
- * 2015년 인구총조사는 제19차, 주택총조사는 제11차에 해당
- ◆ 조사기간 : 2015. 11. 1. ~ 11. 15.(15일간)
- * 인터넷 조사 : 10.24. ~ 10.31.(8일간), 조사 기준시점 : 2015. 11. 1. 0시 현재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
- ◆ 조사대상 : 조사 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 조사방법 : 표본조사(현장조사 실시 : 인터넷조사, 방문 면접조사)
-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김제시(실시기관)

★ 11월 중 김제지평선아카데미 강연

- ◎ 테 마 : 추억을 떠올리며 쉬어가는 하루
- ◎ 시 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00~5:00
- ◎ 장 소 : 김제시청 대강당

제441회	11. 12	제442회	11. 19	제443회	11. 26
알프스마을 성공기 "마음 만들기"	여행과 음식	사는게 참 좋다			
					
강사 황준환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 대표	강사 김화성 前 동아일보 기자	강사 오한숙희 방송인			

※ 자세한 사항은 인재양성과(☎ 540-3822)로 문의 바랍니다.

10월 중 김제의 교육을 살리기 위한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

기탁자	성명(대표자)	기탁금액
금구초등학교 총동창회 고문	운영복	50천원
CMS 후원	안상일 외 618명	6,266천 원

현재 장학금 조성액 : 285억 원

- ♥ 김제사랑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김제사랑장학금 후원관련 문의 : 김제시 인재양성과 ☎ 063) 540-3864

주요 의정소식



정성주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내실있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고 밝혔다.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 제193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19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날 의회는 2015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시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3건의 조례안과 청하사랑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 안건 2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469,000천원의 예산을 삭감, 의결하였으며, 김제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 조항 삭제에 따른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



주신 여러 단체와 시민들에게 감사하고 김제시는 환경정책을 우선하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청정지역 그대로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며 소감을 전하였다.

또한, 김복남 부의장은 “환경기초시설은 지역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쾌감을 주는 혐오시설이 되기도 한다.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며 상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양한 논의와 함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하였다.

김제시의회, 환경정책 연구회 환경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개최

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 연구모임 단체인 환경정책 연구회(대표의원 박두기)는 지난달 30일 환경 사회단체 회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 분야 전문 강사인 권영호 서남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환경기초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펼친 권영호 서남대학교 교수는 환경기초시설의 종류와 필요성, 환경기초시설의 유치단계와 운영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위한 지역주민·지방정부·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강연하였으며, 특히 미래지향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위한 지역주민, 지방정부, 지방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두기 환경정책 연구회 대표의원은 “지난 1년 동안 환경정책연구회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김제시의회, 제208차 전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의 개최!

- 노후 위험교량의 재난사고 예방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채택 -

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는 지난 9월 17일 전북 시군의회의 의장, 부의장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08차 전북 시·군의회의 의장단협의회(회장 우천규, 정읍시의회)를 김제 벽골제 명인학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전북 시군의장단 협의회는 심의 안건으로 철도횡단 교량개축·개량 국비 지원을 위하여 김제시의회가 제안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을 채택하고 관련 기관에 송부하였다. 이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철도 횡단교량을 국비지원으로 개축·개량하여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제시의회 김복남 부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노후, 위험교량의 대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이견으로 법이 개정된 지 3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행령이 미 개정되어 김제육교를 비롯한 철도 횡단교량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 지원 비율이 최소 75%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천규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김제시가 글로벌 첨단 도시와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전북 시군의회의 의장단과 함께 응원하겠다.” 고 말하였다.

한편, 정성주 김제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움직임 등 지역 불균형을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 주민의 대표 기관인 시군의회의 역할과 소명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의장단 협의회 월례회를 통해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역량 결집에 힘 써 나아가길 기대한다.” 고 말하였다.